

“우리나라에 무한한 애정 솟아난 값진 경험”

글 **신정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3 / 사진 **권영우**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아산장학생 38명은 8월 16일부터 2박3일간 전북 부안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산장학생들이 직접 그린 무궁화 벽화 앞에 모였다.

보훈 가정 방문, 담장 벽화그리기, 대청소, 말벗 등 보훈가족의 행복한 여름나기...

올 여름방학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17 정담회 호국보훈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전북 부안의 현충시설을 참배하고, 보훈 가정을 방문해 청소를 도와드리고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시간이어서 유난히 기억에 남았다. 내 할아버지도 경기도 이천 호국원에 잠들어 계신다. 6.25 전쟁 당시 한 의사였던 할아버지는 의무병으로 참전하여 군인들의 부상 치료를 도우며 6년 동안 복무하셨다. 살아생전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지 못하셨지만, 사후에 공로를 인정받아 호국원에 안장되셨다.

6.25가 발발한 지 올해로 67년이 됐다.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분들 중에는 거동이 힘들고, 생활고를 겪는 분이 많다고 한다. 그분들을 찾아뵙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은 오늘을 사

는 젊은이들의 과제이기도 했지만,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8월 16일 아침 8시, 38명의 아산장학생 친구들과 함께 서울 사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부안으로 향했다. 오후 1시에 도착한 숙소는 천문대를 갖춘 청림 청소년수련원으로, 밤이면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는 곳이었다.

점심식사를 하고 처음 찾은 곳은 김낙선 의사 추모공원이었다. 김낙선 의사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신념으로 일제에 항거한 의병장이었다. 총상을 입고 7년 동안 수형 생활을 했고, 출옥 뒤 후유증으로 44세에 서거했다. 추모비에 묵념한 뒤 주변을 청소했다. 전 같으면 탐방객 중의 한 명이 되어 무심히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잡초 한 포기 자라는 것도 아련하게 가슴이 아파왔다. 그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집안 청소를 위해 국가유공자를 찾은 아산장학생들. 보훈 가정의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신정현 장학생(왼쪽부터).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 외로이 누워 계신다는 쓸쓸함이 느껴졌다. 우리가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분들 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많은 생각을 하며 현충시설 참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준비했다. 숙소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가 직접 조리할 수 있었는데 첫날에는 불고기, 둘째날은 카레와 볶음밥, 셋째날은 토스트를 해먹었다. 좁은 주방에서 40명 가까운 장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됐다.

국가유공자 자택 청소와 벽화그리기

둘째날은 오전부터 국가유공자를 찾아뵙는 시간을 가졌다. 7개 조로 나뉘어 보훈 가정으로 갔는데, 나는 6.25 참전용사인 박상근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 박상근 어르신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6.25 때 의무병으로 우리 병사들을 치료하셨다고 한다. 어르신은 연로하시고, 갈비뼈가 흰히 드러나는 야윈 몸이었지만 혼자서 거동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시원한 결명자차를 내주시며 6.25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가 도착해서 처음 도와드린 일은 추수한 참깨를 묶어서 마당에 세워 말리는 일이었다. 한쪽에는 빨간 고추도 널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비닐하우스로 갔다. 거기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삭아버린 비닐과 곰팡이가 가득 핀 박스가 있었고, 그 위에 마늘과 콩을 널어놓았다. 마늘과 콩을 주워 담고, 삽으로 비닐과 양파 껍질질을 한참 퍼내다보니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숨이 턱턱 막혔다. 연로하신 어르신 내외가 오랜 기간 방치한 쓰레기를 비닐하우스 바닥이 보일 때까지 청소하니까 완전히 뿌듯했다.

봉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내외는 우리가 우르르 몰려다니

며 일을 하니깐 흐뭇한 얼굴이 됐다가, 미안함에 난감해 하시다가 빙그레 웃곤 하셨다. 일을 마친 우리들이 방 안의 훈장을 궁금해하자 상기된 얼굴로 6.25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르신의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가 한여름에 흘린 구슬땀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다.

오후에는 장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보훈 가정의 담장에 벽화를 그렸다. 나는 벽화 그리기가 처음이어서 그림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내 작은 붓으로 피어난 무궁화를 보았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동네를 예쁘게 만들어주어서 고맙다며 빵과 음료수를 잔뜩 사다주셨다. 꿀맛 같은 간식도 먹고, 벽화도 잘 마무리한 뒤 숙소로 돌아와 전날부터 연습한 볶음밥을 맛있게 해먹었다. 밤에는 다음날 열릴 유공자와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방문했던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손편지와 영상편지를 제작했다.

마지막 날의 간담회는 부안보훈회관에서 열렸다. 먼저 나라사랑 교육을 받은 뒤 유공자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스무 분의 유공자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오셨다.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여쭙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어르신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준비한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르신의 “현재를 열심히 살아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전 세계에서 민족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제 민족보다 개인을 앞세운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민족과 조국이라는 말에 무한한 애정이 솟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분들이 한없이 자랑스러웠다. 아산장학생들의 모임인 정담회 친구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내 여름방학을 가득 채워준 값진 경험이었다. 🍀